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홍성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장동민¹, 박동소^{2*}

¹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²한서대학교 건축공학과

A Study on the Planning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considering Survey in the Periphery of Local Industrial Park in Hongseong, Chungnam

Dong-Min Chang¹ and Tong-So Park^{2*}

¹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wo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충남 중서부에 위치한 홍성군의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농경기반사회로 지속적 인구감소로 노년층 인구구성비가 17.1%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단순 생산기능 위주의 전통농업이 쇠퇴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외부의 산업체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종 산업단지 및 주변의 난개발로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여 지역의 정주환경을 저하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종사자의 지역 정착에 따른 지속가능하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은 첫째, 문헌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홍성 지역사회의 변화 추세를 도출하며, 둘째, 통계방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일반산업단지 주변개발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주환경의 수준을 제시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계획방향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pose a development guide for the periphery of local industrial park in the region of *Hongseong-gun* located at the mid-west of *Chungnam* province., which is a representative agrarian society, has been approached to a super-aged society where the region shows a continuous decrease in population, and the composition ratio of old ages is about 17.1%. Also, the region is a period of a low ebb due to the traditional agriculture based industrial structure in producing mainly simple productions. Many local governments in agrarian and fishing regions have been efforted for luring some businesses in their regions by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 competitively in order to solve such structural problems in such local regions. However, in some cases, these efforts cause certain destructions in the local original natural environment due to such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and the decrease in the settlement environment of resid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local development plan for building the sustainable and comfortable settlement environments based on the settlement of the residents and the labors in such industrial complex by preventing sprawl developments in the construction of general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was processed as following procedures. First, this study drew the trend in the change of the local society of H-gun through collecting literatures and analyzing it. Second, this study proposed a proper level of settlement environments required to the development of surroundings in such industrial complex based on the survey of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using a statistical method. Finally, this study proposed a development guide for the surroundings based on the proposed level of settlement environments.

Key Words : Human Settlement of Environment, Periphery of Industrial Park, Planning Guideline, Survey

*교신저자 : 박동소(tongso@hanseo.ac.kr)

접수일 11년 02월 15일

수정일 11년 03월 21일

게재확정일 11년 04월 07일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홍성군은 관할 행정구역인 홍북면 일원이 인접 예산군 압교읍 일부와 함께 2007년 7월에 충청남도 고시 제 2007- 178호에 의한 충청남도청 이전 신도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그 동안 홍성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 전통적 농업기반 경제의 위축 등과 같은 지방 소도시 쇠퇴의 구조적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홍성지역이 충남도청이전 신도시로 결정된 이후, 현재 도청 신청사 신축공사와 기반시설 조성이 진행되는 한편, 민간 부문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3].

홍성군은 전형적인 농경기반사회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년층 인구구성비가 17.7%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단순 농업생산기능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중심의 지역경제구조가 쇠퇴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 소도시이다[16]. 국내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외부의 산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종 산업단지의 조성은 주변지역의 개발압력과 난개발로 이어져 지역고유의 자연환경 훼손을 유발하고 있다[7]. 또 한편으로는 산업단지 종사자의 지역 유입에 따른 산업공동체의 형성으로 전통적 농촌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4,5].

본 연구는 홍성군의 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주민의 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정주환경 요소를 정주환경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산업단지 종사자의 공동체 조성과 지역정착을 고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계획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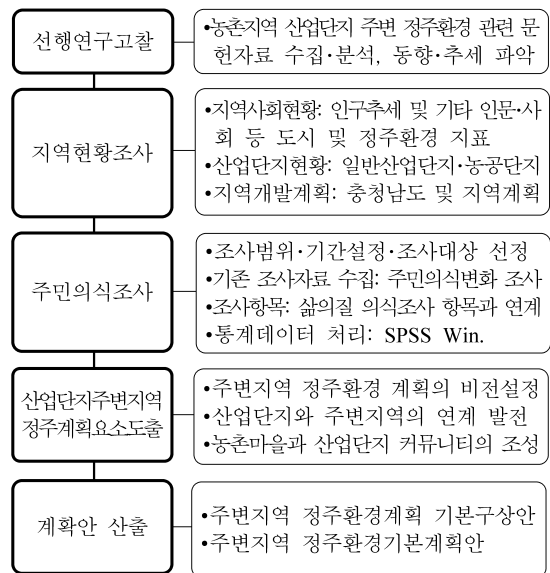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일원에 조성되는 홍성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계획 수립에 정주환경의 조성방향과 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아래와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농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정주환경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 고찰을 통하여 연구의 동향과 계획추세를 파악하며,

둘째로, 홍성지역의 산업단지조성 현황과 충청남도 및 지역계획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지역현황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인구추세, 인문·사회, 문화, 산업·경제, 각종 도시 지표 등에 관한 변화를 분석하여 정주환경의 주요 계획요소를 도출한다.

셋째는, 기존의 충청남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의식조사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새로이 수행한 지역주민의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에 관한 의식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계획 방향을 수립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구상과 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2. 선행연구 및 지역현황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정주환경계획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정주(Human Settlement)란, “인간이 일정한 장소적 범역에서 영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살아가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주환경이라 함은 정착된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삶의 지원환경”이라 할 수 있다[8,22]. 정주환경에 관한 연구는 인문·사회영역을 중심으로 다양

한 주제의 논의가 제안되고 있으나, 산업입지에 따라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된 농촌사회의 정주환경 변화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6,7]. 한편, 농어촌 관련연구의 토대를 제공하는 통계조사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매년 농촌지역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생활지표조사가 수행되고 있다[6]. 최근의 농촌 정주환경에 관한 주요 연구동향은 농촌사회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변화예측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표자료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정주환경, 삶의 질에 관한 지표개발, 정주환경만족도 평가모델수립과 같은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

한편 박동소외(2010), 김미영(2009), 노완호외(2004), 국토연구원(2002) 등의 연구에서는 국내 지방소도시의 경쟁적인 산업단지의 유치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규모는 계획단계의 예측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과 같은 현상이 농촌사회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6,11,12].

홍성군(2009), 박현옥외(2006), 홍성군(2004), 홍성 YMCA(2002) 등은 홍성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삶의 질관련 생활지표를 설정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역민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19-21].

이와 같은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앞으로 농촌의 정주환경계획에 관한 연구는 원주민 중심의 농촌커뮤니티의 정체성 고양과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유입인구의 정주환경조성,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공동체 정주환경계획, 산업입지에 따른 산업공동체 정주환경계획 등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 홍성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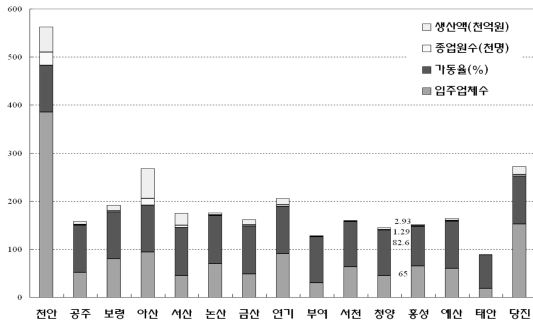
상위계획인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에 따르면 서해안권은 북구해안생활권, 남부해안생활권으로 세분하여 서산시, 홍성읍, 보령시를 광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충남의 타 권역과 기능적 연계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동북부권, 서해안권, 동남부권으로 구분되는 충남의 신산업지대는 광역생활권 단위의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도시 및 주변지역의 산업기반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시기능을 전문화·특화함으로써 도시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식의 교환, 창조성 등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위계획을 근거로 홍성군은 역사·문화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농축산가공·생명분야

의 특화산업을 지향하며, 군의 중심지는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전원도시로 추진하고 농촌중심형, 도시주변형, 특수기능형으로 구분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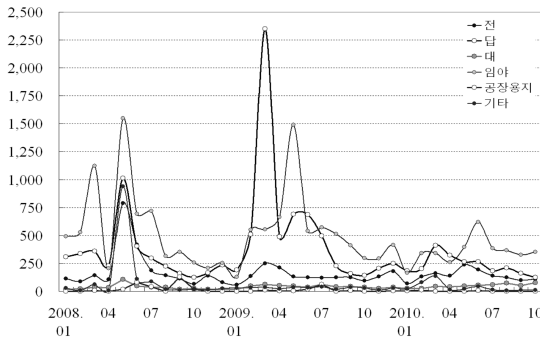
홍성군의 산업단지조성현황은 2009년 현재 6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2는 홍성군을 포함하여 충남 15개 시군의 입주업체수, 가동율, 종업원수, 생산액 등 산업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홍성군의 경우 입주업체수는 논산, 서천, 예산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은 200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홍성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대지와 임야의 거래가 특정년도에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토지거래로 분석되며, 이와 함께 산업체의 개별입지도 특정년도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산업체의 지역입주가 전망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홍성일반산업단지의 주변지역은 홍성군 갈산면 일원으로 16개 법정리, 29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갈산면의 행정구역 면적은 55.84km²로 이 중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계획면적은 13.79km²(24.7%)를 차지하고 있다. 홍성일반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산업단지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기산리, 동성리(성촌 72가구), 취생리, 부기리(54가구), 오두리(45가구) 등 5개 지역이다.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여기에서 홍성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며 규모는 30만m² 이하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와 구분된다.

갈산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2008년 12월 현재, 농가 1,111가구, 비농가 450가구, 인구 5,104명이며, 논 556ha(11.8%) 밭 1,541ha(32.8%) 임야 2,463ha(52.4%), 대지 60ha(1%) 기타 75ha(2%)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산업단지 권역의 주변지역은 비도시지역이며, 권역의 2.38km²가 기존 개발지로 취락지구와 농공단지를 포함한다. 이 중에서 개발억제지의 규모는 6.37km²로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며 권역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불능지는 토지적성평가 기준의 경사도 15° 이상 지역으로 권역내 봉화산 지역이 해당되며, 권역 전체의 15.6%인 2.37km²를 차지한다. 따라서 권역의 개발가능지는 전체면적 15.18km²의 26.7%인 4.06km²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권역의 주변지역 계획인구는 홍성군의 인구계획과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사회적 인구유발 추정치를 고려하고, 입주산업체 종사자의 90% 이상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조건으로 계획인구를 산정한 결과, 산업체 종사자 20,266명, 총 유입인구 30,765명으로 산정되었다. 그림 4는 홍성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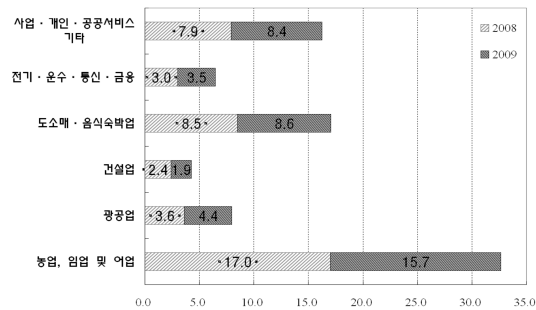
2008년과 2009년의 산업별 취업자 현황으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광공업업을 비롯한 2차·3차 산업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조성으로 외부에서 홍성지역에 유입되는 도시인구의 현저한 증가추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홍성군의 1992~2009년 기간 동안 외국인 등록인구변화에 따르면, 2000년의 231명에서 2009년 1,234명으로 1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여 향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지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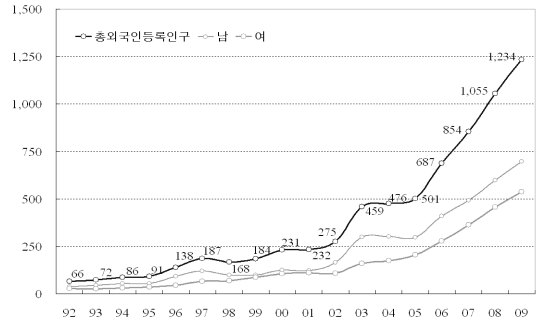
[그림 2] 충남산업단지 현황(출처: 2007년, 충남통계)



[그림 3] 홍성군 2008 ~ 2010 지목별 토지거래 현황(단위: 천m², 출처: 충남통계연보, 2010)



[그림 4] 홍성군 산업별 취업자현황(단위: 천명, 출처: 충남통계연보, 2010)



[그림 5] 홍성군 1992 ~ 2009 기간의 외국인 등록인구 변화(단위: 인, 출처: 충남통계연보, 2010)

3. 정주환경에 관한 주민의식조사

3.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홍성군 갈산면 일원의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정주환경 요구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정주환경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홍성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년과 2004년에 시행한 충남의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의 정주여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1차 자료로부터 홍성군의 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결과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홍성군의 주민의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범위는 홍성군 갈산면 홍성일반산업단지 주변의 8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의 배포는 홍성군청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120부를 배포하여 이 중 80부(66.6%)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응답 항목별로 결측치가 발생한 설문을 제외하고 78부(65%)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설문항목의 구성 및 조사 방법

조사항목의 선정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에서 작성된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2000년·2004년도와 2008년의 응답결과가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설문항목의 구성은 ① 인구통계학적 문항, ② 교육 및 문화·여가생활(12문항), ③ 지역개발 및 정보화 부문(8문항), ④ 정주환경 만족도(7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의 주요 세부 항목은 도시의 발전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민이 희망하는 주요산업, 주민이 희망하는 지자체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 향후 산업화의 추세, 타 지역으로 이주 가능성, 지역정착이유, 향후 주거수준 발전 가능성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정주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주요 세부항목의 구성은 현직업의 만족, 자연환경의 보전여건, 교통문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여가, 주거형태 등의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만족도에 관한 항목은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분석방법은 기본적인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조사 항목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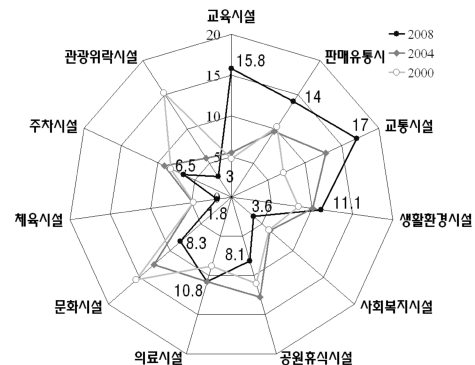
3.3 주민의식 조사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식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빈도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으로, 조사대상 주민의 연령은 60세 이상 35%, 51~60세 32%, 41~50세 22%이며, 성별은 남자 76.6%, 여자 23.4%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빈도는 취생리 25%, 부기리 23.7%, 기산리 1.3%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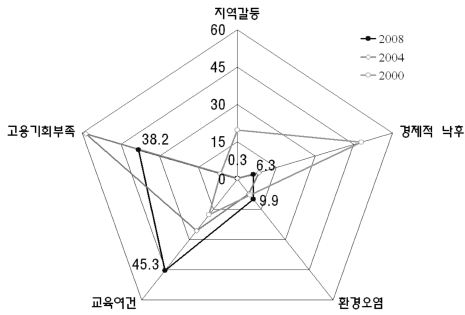
현재의 생활여건에 관한 만족도 항목은 79%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현재의 정주환경 선호이유에 관한 항목에서는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이 74%로 응답되었고, 양호한 자연환경 14%, 안정된 소득 11%로 나타났다. 지역거주자의사에 관한 항목에서는 84%가 계속 거주자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0년, 2004년의 조사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의 시설에 관한 항목에서는 그림 6과 같이 교육시설·유통판매시설 등과 같이 과거에는 응답빈도가 낮은 항목에 관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어 2000년·2004년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주변 및 인접지역의 주민은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항목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필요성에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관한 이유는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확충 37%, 고용증대 21%, 교육·문화·복지수준 개선 20%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단지조성 반대 이유에 관하여 자연환경 훼손·오염 54%, 재산권침해 19%, 농어업 피해 10%로 응답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농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주로 토지가격이 낮은 임야, 전, 답을 산업용지로 조성함으로써 농경지의 잠식을 비롯한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및 경관훼손을 유발함에 따른 응답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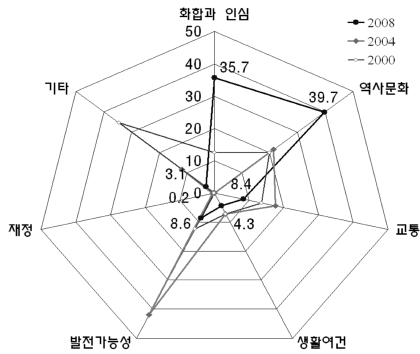
교육여건에 관한 우선순위는 지역학교 운동장 정비 등의 교육환경개선 32%, 문화·오락시설 27%, 실내체육관 19%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홍성군은 인구감소와 함께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1994~2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학생수 변화추이는 초등학교 -3.1%, 중학교 -6.0%, 고등학교 -7.2%로 나타나며,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94년 30명, 2004년 22명, 중학교는 44명에서 29명, 고등학교는 56명에서 30명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저출산 현상과 교육여건이 양호한 도시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충남도청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 관하여,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8년의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고려 항목에 관한 응답에서 50.8%가 '자녀의 교육환경'으로 응답하였다. 공무원의 전체적인 응답결과는 자녀의 교육환경 46.8%, 주택확보 및 주거환경 31.9%, 문화공간 및 생활편의시설 11.2%, 부부의 근무지 6.9%, 급지시설 3.2%로 조사되어 자녀의 교육환경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지역주민의 교육여건에 관한 항목의 응답결과는 2000년·2004년·2008년 응답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관된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어 그림 7의 지역여건 개선 우선순위와 그림 9의 교육여건에 관한 만족도 항목의 응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주환경계획의 핵심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그림 8의 교육여건에 관한 일관적인 응답 결과를 분석할 때, 지역공동체의 역사·문화, 교육여건 등의 사회성에 두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종합 할 때,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계획의 핵심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고양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교육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이 산업공동체의 매개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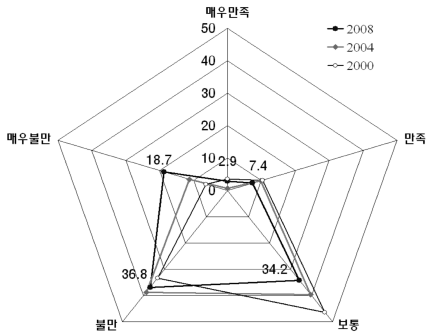
[그림 6] 주민희망 정주환경의 우선순위시설(단위 %)



[그림 7] 지역여건 개선 우선순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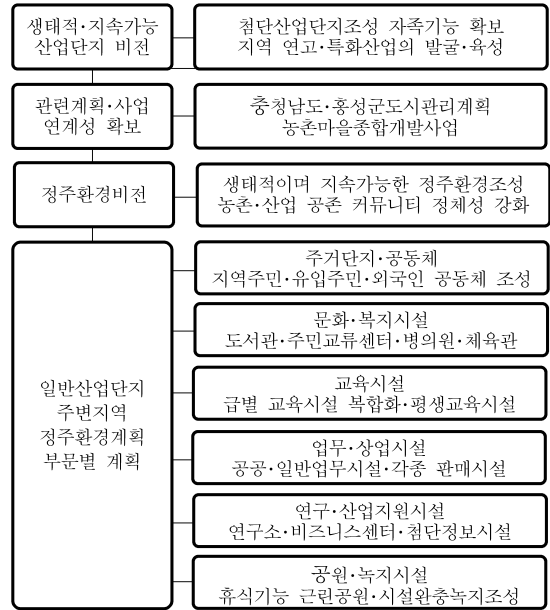
[그림 8] 지역의 장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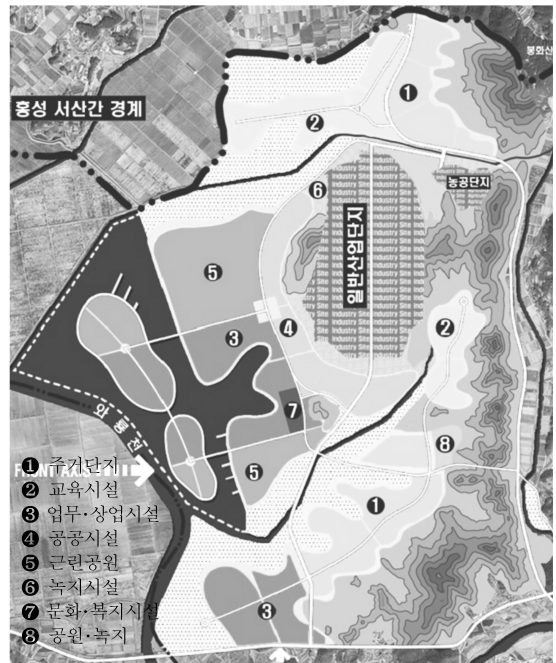
[그림 9] 교육여건에 관한 만족도

4. 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계획안

본 연구에서는 홍성일반산업단지지역주민 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그림 9의 산업단지 주변 지역 정주환경 기본구상안과 그림 10의 정주환경 기본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0] 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기본구상안



[그림 11] 홍성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기본계획

5. 결 론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로 지정되어 도청을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신도시 이전을 목표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항선의 복선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완공 등 교통체계의 개선 등과 함께 국토해양부의 서해안권종합개발계획 등으로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급격한 농업노동력 감소와 노령화의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해체, 소규모 집촌의 산재로 인한 지역사회시설 유지 곤란과, 국지적인 도·농 공존지역인 혼주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등이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서북부권역에 위치한 홍성군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규명하고 이를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와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산업현황을 고찰하고,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에 관한 정주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역주민 의식조사의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지역주민은 산업단지의 지역입지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고용과 소득증대 측면과 함께 산업단지조성으로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에 의하여 지역마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는, 지역주민의 산업단지기피요인은 일차적으로는 산업단지조성으로 지역의 자연환경훼손이 가장 큰 기피요인이며, 한편으로는 도시적 성격의 산업공동체가 지역의 전통적 사회규범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갈등이 주요 기피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업단지의 산업공동체와 전통적 농업공동체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며 쾌적한 정주환경 정착이 관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에 대하여 비교 우위에 있고, 생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전통적 농경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보전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 고유한 정주환경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산업화·도시화의 규범과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충남발전연구원, 농촌지역 생태마을 조성 현황 및 과제: 충청남도도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2008.
- [2] 충청남도, 충청남도 통계연보, 충청남도, 1999~2009.
- [3] 충청남도, 충청남도지, 지역개발편,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pp.126~127, 2009.
- [4] 문봉섭,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 [5] 박현옥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 홍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1호, pp.83~99, 2006.
- [6] 박동소·장동민, 산업화지역 농촌기반 공동체의 정주환경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10, 12.
- [7] Barnard, P.& N.K. Van Der Merve,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991.
- [8] 김홍순, 산업단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진해 마천지방산업단지의 생태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7권 제1호 제41집, pp.117~141, 2005. 3
- [9]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표조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9.
- [10] 국토연구원, 도·농통합형 정주기반 구축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국토연구원, 2002.
- [11] 김미영,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주변지역 거주동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8.
- [12] 노완호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홍성군을 중심으로, 내포지역발전연구. 제2권 제1호 (2004. 12), pp.153-176.
- [13] 농림부, 생태·문화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농촌마을 계획기술 연구, 농림부, 2002.
- [14] 박현병외, 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 소도시의 중심지가 지 현황분석 및 의식조사:충남 조치원읍과 홍성읍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3권 제7호 통권167호 (2008년 12월), pp.161-173.
- [15] 박현옥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충남 홍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1호, pp.83-93, 2006. 2.
- [16] 정나영,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주민 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를 중심으로, 공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8.
- [17]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자족성 및 주변지역과 연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8
- [18]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2000 ~ 2010.
- [19] 홍성군, 홍성중장기발전전략 1999, 홍성군, 1999.
- [20] 홍성군, 홍성통계연보, 2009 (제49회), 홍성군, 2009.
- [21] 홍성 YMCA, 홍성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지표 만들기, 홍성군 시민의식과 삶의 질에 관한 조사보고서, 제25차 홍성포럼 자료집, 2002.
- [2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도청 이전지의 교육, 복지, 문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6.

장 동 민(Dong-Min Chang)

[정회원]



- 1992년 3월 : 독일아헨공대 건축학과 Dipl.-Ing.(학사+석사)
- 1997년 11월 : 독일아헨공대 건축학과 Dr.-Ing.(공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생태건축, 친환경도시건축

박 동 소(Tong-So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공학사)
- 1995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공학석사)
- 1998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물에너지시스템, 도시환경